

월간

공군



제557호

11

0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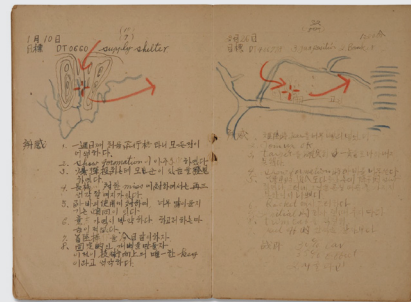
18 **특별기고**
특파원이 전하는
공군 군악대 브뤼셀 교민 공연

20 **공군 부대 탐방**
제5공중기동비행단

24 **이달의 공군史**
독립 공군의 면모 갖추기: 공군 최초의 항공창,
제80항공창 창설

12 **내 옆의 공군인**
전군 최초 여군 과학수사관, 방희원 중사

26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6·25전쟁기 공군 군사 기록물



15 **기획**
공군 군악대,
대한민국의 선율로 벨기에를 흔든다!



28 **역사 속 공군 이야기**
6·25전쟁 직후 한국 공군 내 조종사적성검사
도입에서 한·미 공군의 역할

표 지 (앞)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 중인 KC-330 시그너스(병장 문준혁)
표 지 (뒤)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고 있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11월 1일(통권 제557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10046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립니다.

33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VII: F-86 세이버



48

영화로운 나날

「존 오브 인터레스트」
- 평온한 일상의 벽 너머에 깃든 섬찝한 진실

50

생각하는 그림

오렌지 주스에 담긴 역발상

52

공테리어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간단한 방법

38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호주, 다윈

53

책 읽는 공군

누구나 아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유일한 생각을 만드는 독서법

42

한 달, 한 권

마이크 브라운의 명왕성 퇴출기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54

공군인의 하루

기다리며 기리는 마음을 가진 하루

44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올리브: 지중해의 황금 기름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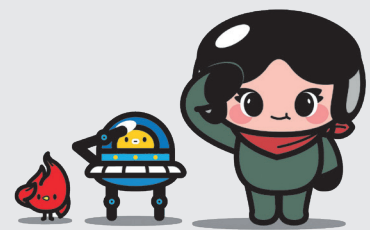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46

동서양 그랜드투어

‘꼬꼬댁’이 아닙니다: 황창배의 「곡고댁」



월간
공군



타우러스(TAURUS) 실사격 성공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10일(목), 서해 상공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rget Adaptive Unitary and dispenser Robotic Ubiquity System)의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원점과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날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정비사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고 비행하는 F-15K



표적을 정확히 명중한 타우러스 미사일

레바논 재외국민 귀국 지원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3일(목), 레바논 내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와 C-130J 수송기를 전개했다. 공군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약 16시간의 비행을 통해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해, 교민 90여 명을 무사히 인솔하여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김해기지를 이륙하여 레바논으로 향하는 KC-330 공중급유수송기



교민들에게 항공기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경례하는 김덕중 대령



공군 항공특수통제사(CCT)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교민 자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전귀국을 환영합니다.
 24. 10. 5.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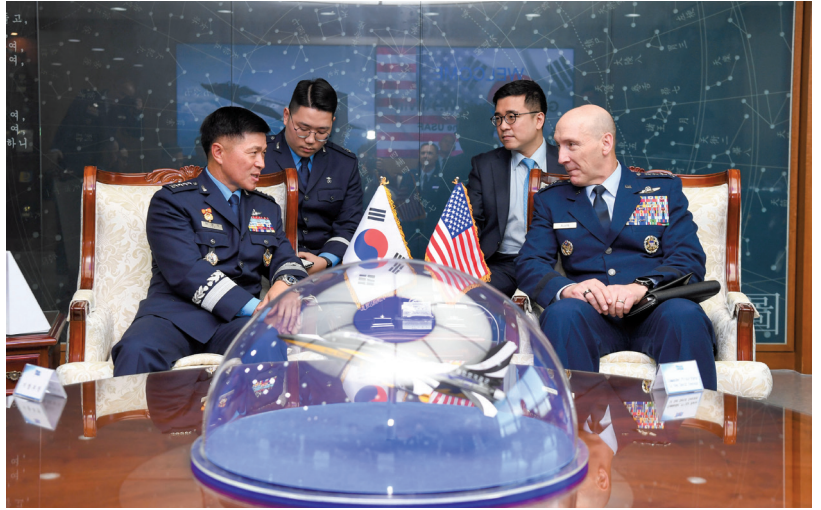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이영수 참모총장은 10월 1일(화) 서울기지와 광화문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기지에서 의 기념식과 시가행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영공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F-16·F-15K,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전력이 공중분열에 참여하여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더불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완벽한 호흡으로 다채로운 기동을 선보이며 ‘강한 공군’의 면모를 과시했다.



美 공군참모총장 양자대담



이영수 참모총장은 10월 17일(목) 공군본부에서 데이비드 앨빈(David W. Allvin) 美 공군참모총장(대장)과 양자대담했다. 양국 참모총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쓰레기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는 데 이어, 평양 상공 무인기를 빌미로 남북연결도로와 철길을 폭파하는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 도발시 압도적인 한미 공군력으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4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이영수 참모총장은 10월 18일(금),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본부와 동시 수감부대에 대한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 군 기강이 확립된 선진 병영문화 조성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을 건설해 굳건한 국가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작전사령부

'24-5차 쌍매훈련

공군작전사령부는 10월 15일(화) ~ 17일(목),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한 기지에 모여 항공작전 전술을 교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의 KA-1, FA-50과 미국의 A-10이 참가했다. 근접항공지원 작전(Closed Air Support, CAS) 등 실전적 훈련과 전술 토의를 통해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은 연합 전력운용 능력을 배양하고 전·평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했다.



미사일방어사령부

패트리엇 유도탄 폭발물 대응훈련

미사일방어사령부는 10월 7일(월), 제15특수임무비행단 협조하에 폭발물처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패트리엇 유도탄이 폭발되거나 포대가 적의 폭발물에 피폭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미사일방어사 훈련 요원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상황별 조치절차를 내면화했다. 미사일방어사는 훈련을 통해 정립된 폭발물 처리절차를 방공포병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폭발물처리 요원들이 방공유도탄 불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10전투비행단

야간 기지방어 종합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9월 24일(화), 성공적인 항공작전 운영과 기지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야간 기지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기지방어 종합훈련은 기지에 침투하는 적 세력으로부터 기지를 사수하기 위한 모의전투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미승인 드론 비행, 오물 풍선 낙하, 화생방 테러 등 현 안보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부여되었고 이를 통해 훈련 참여 장병들은 다변화된 도발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다.



제11전투비행단

'24-2차 전투태세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10월 14일(월) ~ 17일(목), 전시 행동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전투태세훈련(Operation Readiness Exercise, ORE)을 실시했다. 11전비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TAURUS) 발출 및 점검 훈련을 시작으로 최대무장장착훈련, 재난통제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11전비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 수행능력을 증진하고 위기 조치절차를 체화할 수 있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희망 나눔 바자회 봉사활동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0월 8일(화),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한 희망 나눔 바자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바자회에는 15비 주임원사를 포함한 40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15비 봉사 참여인원들은 무료 국밥 나눔, 바자회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군 핵심가치 중 하나인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기 제독훈련 경연대회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0월 7일(월), 항공기 제독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항공기 제독훈련은 화생방 오염 등 상황에서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출하고 항공기를 제독하는 훈련으로 전시 항공작전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이다. 6전대 정비사들은 항공기 제독 상황 발생 시 출동, 정밀제독 절차 숙지 여부, 제독 장비 점검 등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받으며 기종별 제독 능력을 점검했다.



내 옆의 공군인

제58화
전군 최초
여군 과학수사관,
방희원 중사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공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희원 중사라고 합니다. 2018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47기로 졸업하고 2022년 공군 수사관 공개선발 1기로 선발되어 공군 수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과학수사관으로 선발되어 과학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감식, 검시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집중력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직무에 필요한 사명감을 함양하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인 방희원 중사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살아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과 친해지게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분이 가진 무언가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동경하게 되었고 군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어린 나이에 ‘공군’이라는 이미지가 뇌리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홍보영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고 군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사관 그리고 이어서 과학수사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그 ‘꼼꼼함’을 바탕으로 제16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관 특기로 근무하며 항공기 엔진 분해·조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항공기관 특기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저는 늘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잘 알고 지내며 저의 장점에 대해 공감해주는 동료들이 ‘수사관’이라는 직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을 보며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꼼꼼함과 기계보다는 사람을 향하는 제 마음이 해당 직무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사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다른 수사관들과 차별화된 수사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공기관 특기로 근무한 적이 있어 다른 수사관들보다 상대적으로 기계와 친하고 많은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증거를 검증하는 과학수사관에서 빛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수사관이 되어보니 다양한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 그 선택이 어느 정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관이 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과학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공군 전 특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발하며 ‘서류-다면평가-면접-이론평가’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과학수사관은 수사관 중 과학 수사에 특



현장의 이상 패턴을 확인하는 ‘검색’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서채우 준위와 방희원 중사

화된 인원을 공군 수사단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선발된 이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과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과학수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관이 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보람되었던 순간은?

수사관이 되어서 절도와 관련된 사건 현장을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제가 발견했던 증거들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국 피의자의 인정을 받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분들이 ‘감사하다’고 연락해줬을 때 수사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무언가 해낸 것 같은 성취감과 대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가 공군 수사단에서 주관하는 수사기법 연구 발표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장 감시 영상을 보고 브리핑하고 있는 방화원 중사



지문채취 실습을 하고 있는 방화원 중사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조용히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묻혀있지도 않으면서 제가 해야 할 소임을 묵묵히 그리고 잔잔하게 해나가면서 은은한 빛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프로파일링, 증거분석법 등 과학수사관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며 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되는 순간 제가 그린 그림, 그리고 제가 만든 도자기 같은 것으로 전시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범이 되는 수사관으로서 그리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자에게 한마디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학수사관의 역할이 주는 ‘멋진 모습’의 이면에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해야 하기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힘든 모습’이 숨어있습니다. 또한,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그리고 흔적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늘 공부를 멈출 수 없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생스럽고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과학수사관이지만 해당 직무에 대한 인지도가 군 내·외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수사관에 대해 알고 과학수사관이 펼치는 수사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공군 군악대, 대한민국의 선율로 벨기에를 흔들다!



벨기에 국가문장

“Soft Power”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공군에는 이러한 Soft Power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군 군악대이다. 공군 군악대는 1951년 10월 17일 창설된 이래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각종 의식행사, 해외 공연 등에서 활약하며 문화예술분야 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공군 군악대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각종 해외 군악제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소리를 세계에 알려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벨기에 국제군악제(Internationale Taptoe België 2024)에 참가한 공군 군악대는 “Con Anima, Con Fuoco(씩씩하게, 정열적으로)”라는 군악대의 슬로건처럼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벨기에 현지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참전용사 추모비

벨기에는 경상남도과 북도를 합친 정도 면적과 약 1,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북해에 인접해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달리 국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작은 면적을 가진 국가이지만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벨기에를 보면 이 땅에 얽힌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역사를 짐작해볼 수 있다.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Brussel)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위치한 국제도시로 유럽 정치·외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이렇듯 벨기에는 작은 국토 안에 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이 넘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관계는 약 120여 년 전인 1901년부터 시작된다. 벨기에는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를 맺은 이래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증진시켜왔다. 특히, 벨기에는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 중 하나이다. 3,5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중 106명이 전사했다. 대한민국 동두천시와 벨기에 브뤼셀에는 이들은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있다. 추모비의 “자유 세계를 위해 한국에서 전사한 벨기에인들에게”라는 문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군악제의 막을 연 공군 군악대

이번 군악제가 열린 오스텐데(Ostende)는 브뤼셀에서 약 115km 떨어진 곳으로 북해의 해변을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오스텐데에서 열리는 벨기에 국제군악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행사로, 독특한 콘셉트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군악제이다. 이번 군악제에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를 비롯해 5개국(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8개팀이 참가했다.

다양한 국적의 팀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모든 출연자가 참석한 가운데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공연 전날인 10월 4일 하루뿐이었다. 공군 군악대는 무대 세트와 조명, 음향 등 완벽한 공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하며 관객들을 맞이 위한 준비를 했다.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의 시작을 알린 무대를 장식한 주인공은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와 우크라이나 육군 군악대였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인 ‘This is me’에 맞춰 공군 군악대와 우크라이나 육군 군악대는 오랜 연습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오프닝 공연 중인 공군 군악대와 우크라이나 육군 군악대

화려한 마칭 공연, 벨기에를 사로잡다!

공군 군악대의 공연은 한 마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전통음악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있는 K-pop을 군악대 특유의 마칭(Marching)으로 풀어냈다. 본 공연에서 군악대는 대한민국의 대표 아리랑으로 알려진 ‘경기민요 아리랑’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경기민요 아리랑’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듣는 이들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2024 벨기에 국제군악제 실황 영상 QR
(출처: 대한민국 공군 YouTube 공식채널)



경기민요 아리랑을 연주하며 대형을 이동하는 공군 군악대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군 군악대

경기민요 아리랑에 이어 공군 군악대는 타악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가수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대표적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신나는 비트가 공군 군악대 특유의 흥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을 흥얼거리게 그리고 들썩이게 만들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홀로 아리랑’ 공연이었다. 국가유산진흥원 무용단과 협연으로 펼쳐진 공연은 국악가창과 무용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군 군악대는 ‘고향의 봄’ 반주에 맞춰 앞서 출연한 모든 인원이 함께 노래하여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주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홀로 아리랑을 열창하는 김혜진 중사와 나지훈 하사




홀로 아리랑 선율에 따라 무용을 선보인 국가유산진흥원 무용단



고향의 봄 연주에 맞춰 공연을 펼친 공군 군악대



공연 종료 후 관객들에게 경례하고 있는 공군 군악대장 박재경 소령

벨기에 국제군악제 기간인 10월 5일 ~ 6일 동안 공군 군악대는 총 3회의 공연을 펼쳤다. 모든 공연이 끝난 다음 날인 10월 7일, 공군 군악대는 5박 8일 동안의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공군 군악대는 벨기에라는 낯선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줬다. 공군 군악대가 들려준 아름다운 선율에 흥겨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할 것이고 이 기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공군 군악대가 보여준 부드럽지만 강한 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특파원이 전하는 공군 군악대 브뤼셀 교민 공연



“여기는 브뤼셀...공군 공연에 ‘국뽕 비상(飛上)’”

‘정 기자, 취재 잘해줄 거지, 믿는다!’



정빛나 기자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사회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출입했습니다. 현재는 벨기에 브뤼셀 특파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공군 군악대가 벨기에 브뤼셀을 찾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수개월 전입니다. 국방부 출입 시절 기사로 밀고 당기며 뜻하지 않은 ‘전우애’를 쌓은 공군 정훈실의 ‘고위’ 관계자가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이제 와 털어놓자면, 브뤼셀 현지 시민·교민을 대상으로 군악대가 공연한 10월 3일은 제게도 모처럼 꿀 같은 휴무일이었지만, 아버지 잔소리 같은 그 ‘고위’ 관계자의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침대를 박차고 집을 나섰답니다.

가면서도 내내 걱정이 앞섰습니다.

‘버스킹 공연이라 제대로 홍보도 안 했다는데, 썰렁하면 사진을 찍어도 없어 보일 텐데, 기사는 또 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

기자에게 ‘기삿거리 안 되는 현장’만큼 괴로운 건 없거든요.

공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원에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우렁찬 악기 연주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느덧 300

여 명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공연 소식을 듣고 온 교민들도 일부 있었지만, 관객 대부분은 지나가다 음악 소리에 발길을 멈춘 이들이었습니다.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져 다소 쌀쌀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내내 폭우에 가까운 비가 내리더니 공연 당일 유난히 화창했던 날씨도 한몫했습니다.

군악대원 50여 명과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무용단원 10여 명이 버스킹 콘셉트로 기획한 공연은 1시간가량 국악 가요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타악 공연을 펼치고 있는 공군 군악대



공군 군악대 중창단의 공연을 보고 환호하는 현지 관객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군악대가 직접 편곡한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춘 타악기 퍼포먼스가 나오자 시민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 넣을 사진을 설 새 없이 찍고 있는 저를 공연 관계자인 줄 착각한 한 외국인인 '제복 입은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새로 나온 K팝 가수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민 인터뷰에 응한 체코인 페테르 피슈테크(28) 씨는 "한국은 군악대 연주도 최고네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리사 지엔가(30) 씨는 "어렸을 때 케이팝을 좋아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며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시민들이 군악대원들과 앞다투어 '인증샷'을 남기려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그날 공연은 특히 현지에서 오래 산 교민들에게는 큰 위안이자 자부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교민은 "십수 년 전에 벨기에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한국을 높이 평가하지 않나"라며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군인은 없어서 안 될 존재 아니냐. 아들 같은 군인들의 공연을 보

며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교민은 "유럽에서 길거리 공연이 많akon 해도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공연을 보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들 합니다. 속된 말로, 사소한 것에도 '국뽕'이 차오른다는 거지요. 사실 처음엔 그런 얘기가 조금은 거북했습니다. 내가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데 웬 애국심? 더군다나 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권력'을 비판하는 것에 더 익숙한 제게 애국심은, 드러내서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였죠.

하지만 어느덧 특파원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저 역시 "코리아"라고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하물며 동네 마트 진열대에 신라면이 동난 걸 보면 괜스레 흐뭇해지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걸 몸소 체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군 군악대의 브뤼셀 공연은, 다시 한번 꺾꺾 숨겨뒀던 '국뽕'이 날아오르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난 군악대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공군 장병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필승! 

공군 부대 탐방



제5공중기동비행단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투, 감시, 정찰, 대공방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여러 부대를 탐방하며 부대의 역사와 임무 그리고 비전을 전하는 기획 연재를 준비했다. 이번 호에서 다룰 부대는 세계평화를 위해 다양한 인도적 해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이다.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역사





5비는 조국을 수호하며 “큰 뜻, 큰 날개”를 가지고 전 세계로 힘차게 도약·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중기동부대이다. 5비는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중기동작전, 공중급유작전, 탐색구조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수, 인도적 구호활동과 평화 수호임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비의 역사는 1966년, 제5공수비행단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5비는 창설된 이래 수많은 대민지원은 물론 다양한 해외임무를 수행해왔다. C-54 항공기 도입과 함께 창설된 비행단은 1966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3만 명의 환자와 900톤의 화물을 수송했다. 이후, 1971년 부대 명칭을 제5전술공수비행단으로 변경하고 1972년 대구에서 김해기지로 이전한 5비는 CN-235 항공기 등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며 내실을 다져나갔다. 5비는 지속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해외 임무 지원에 나서며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높여갔다.

5비는 1990년대 소말리아와 동티모르 PKO(Peace Keeping Operation, 유엔평화활동) 공수는 물론 1991년 걸프전 전방지역 화물 공수 임무를 담당하며 발전된 작전 역량을 보여줬다. 더불어, 2001년 아프간 난민 구호물자 공수, 2004년 이라크 평화재건 작전과 2006년 필리핀 산사태 긴급 구호물자 공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며 국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2013년 현재의 부대 명칭인 ‘제5공중기동비행단’으로 부대명을 변경한 5비는 2019년 KC-330 공중급유수송기를 전력화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또한, 2020년 제259특수임무대대를 전환 창설하여 대테러 및 특수작전 영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5비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대 연혁>

1966. 9.	제5공수비행단 창설	C-54 최초인수	
1966. 10.	55단(은마부대) 월남전 참전		
1972. 2.	김해기지로 이동		
1988. 1.	C-130 항공기 도입 및 제251전술공수비행대대 창설		
1991. 1.	56단(비마부대) 걸프전 참전		
1993. 10.	소말리아 PKO 공수작전		
1994. 1.	CN-235 항공기 도입	소말리아 PKO 공수	
1999. 9.	동티모르 PKO 공수작전		
2001. 10.	아프간 난민 구호물자 공수작전		
2004. 10.	이라크 평화재건 작전 참전(58단 다이만부대 창설)		
2006.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진 긴급 구호물자 공수		
2011. 3.	일본 대지진 긴급 구호물자 공수		
2018. 9.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창설		
2018. 11.	KC-330 공중급유기 도입		
2019. 4.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해외임무	KC-330 도입	
2021. 6.	얀센 백신 해외공수 임무		
2021. 8.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긴급철수 해외임무(미라클 작전)		
2023. 2.	튀르키예 지진 관련 KC-330 긴급공수		
2023. 4.	수단 교민 긴급 철수작전(프라미스 작전)		
2023. 10.	이스라엘 교민 귀국지원 작전	프라미스 작전	
2024. 10.	레바논 체류 국민 귀국 지원		
	⋮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주요 임무

현재 5비는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기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한미 연합공수훈련인 ‘허큘리스 가디언스’ 등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긴급 구호 물자 공수, 환자 후송 등의 해외 공수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5비에서 운용 중인 C-130, CN-235 수송기로 저고도 침투하여 필요한 곳에 인원을 강하시키거나 화물을 투하함으로써 병력을 투입하고 물자를 공중에서 보급하는 공정작전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5비는 2018년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도입하여 체공시간 및 무장 탑재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중급유작전’이 가능해졌다. KC-330을 통해 비행 중 연료 공급이 가능해져 항공기의 행동 반경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항공특수통제사(CCT)들은 목표지역에 가장 먼저 침투하여 지상관제를 실시하는 특수임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소 재해재난 및 테러 등 위험으로부터 인원 및 자원을 탐색하여 구조하는 ‘탐색구조작전’,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기지 인근 화재 시 소방지원, 불발탄 처리 및 화생방 전력 지원, 대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5비는 부산·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군부대로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신뢰받는 공군상 확립에 힘쓰고 있다.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항공특수통제사 낙하산 강하 훈련



EOD 종합훈련



프라미스 작전



대민 의료지원



미라클 작전



이스라엘 재외국민 긴급철수 작전



공중 화물 투하



조명탄 투하 훈련




데저트 플래그 훈련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임무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미래

5비는 특수임무부터 전술공수, 공중급유까지 정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레바논에서는 위험에 처한 교민들을 구출해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또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피치 블랙, 데저트 플래그, 코프 노스 등의 수많은 연합훈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며 때

로는 연합훈련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뛰어난 작전 능력을 선보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5비는 넓은 임무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공군 유일의 해외참전부대라는 전통을 지켜나가며 앞으로도 “큰 뜻, 큰 날개”라는 가치에 걸맞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비행단으로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것이다. 

이달의 공군史 독립 공군의 면모 갖추기:
공군 최초의 항공창, 제80항공창 창설
 (1951. 11. 15.)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그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7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흘린 땀방울로 공군은 발전해올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변곡점이 되며 현재의 공군을 만들어냈다. 「이달의 공군史」 코너에서는 매월 공군 역사의 변곡점이 된 사건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제80항공창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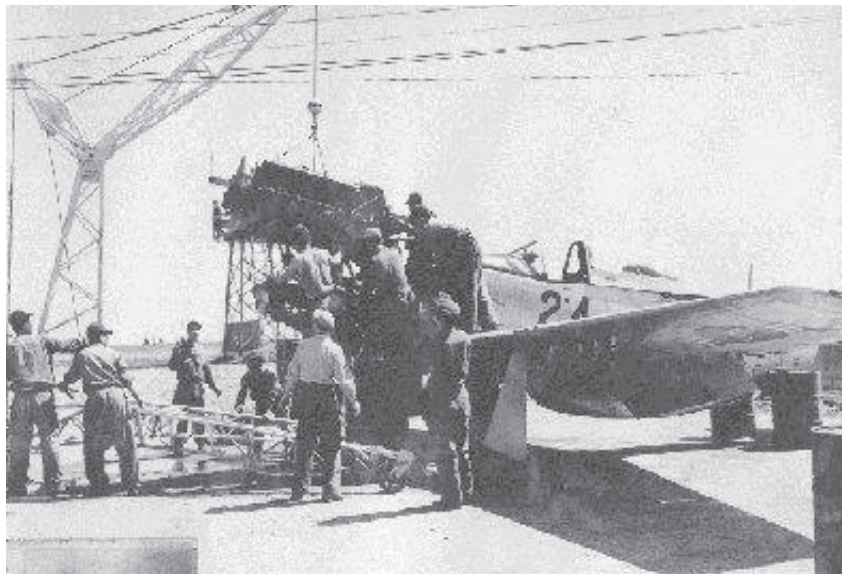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질병과 노화를 겪는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일선 부대에서 수리하기도 하지만, 큰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종합병원과 같은 곳을 찾아야 한다. 공군에서 그 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항공정비창이다.

현재 공군은 군수사령부 아래 복수의 항공정비창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공군이 처음 탄생했을 때의 규모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1949년 10월 공군이 공식 창설했을 때 항공기는 20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도 모두 경량의 연락기뿐이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으로부터 F-51D를 지원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공군의 규모는 하나의 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초기 공군은 항공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항공기의 예방정비와 야전정비 정도는 일선 부대에서도 가능했지만, 엔진 분해수리나 기체 대수리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비는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제6405 한국항공군수부대(KAMU, Korea Air Material Unit)를 통해 일본에 있는 미 공군의 창정비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공군은 자체적인 정비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전개하며 일정 성과도 내고 있었다.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L-4와 L-5에 대한 엔진 분해수리와 기체 대수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선 부대에서도 기초적인 정비를 통해 기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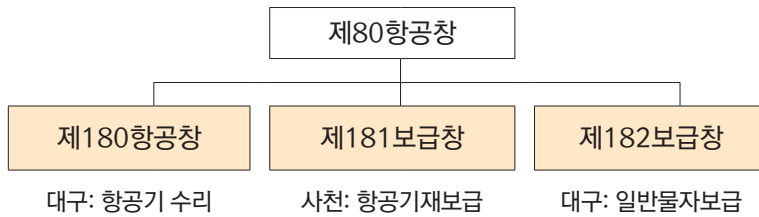
공군은 1·4후퇴 후 재정비에 나서면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원활한 작전의 수행을 위해서는 군수지원체제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공군은 사천기지로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제1보급분창을 신설하였고, 이어서 1951년 9월 9일, 군수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T/O&E(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 조직 및 장비 기준표)와 T/A(Table of Allowance: 장비인가표)를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이를 통해 F-51D 등 보유 항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부속품과 공구를 미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군수 분야의 정비는 1951년 10월부터 강릉기지에서 역사적인 단독출격작전이 개시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했다.



6·25전쟁 중 파손 전투기 수리 장면



항공창 제1주년 기념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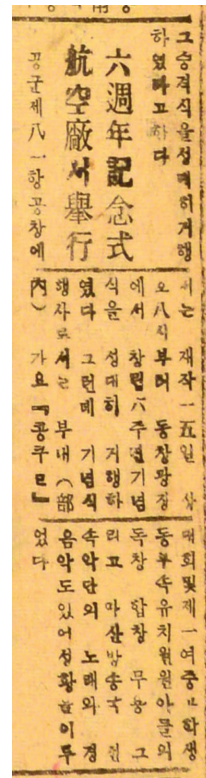
제80항공창 편성표 (1952. 1. 31.)



美 극동사령관 밴 플리트의 항공창 방문(1952. 2. 20.)



제81항공수리창 마산공장



항공창 창설 6주기 행사 보도 (『마산일보』)

독자적인 항공기 운용은 보급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춰야 가능했다.

이를 위하여 공군은 1951년 11월 15일 대구에서 제80항공창을 창설했다. 제80항공창은 곧바로 병력이 집중된 사천으로 본부를 이전했다. 그리고 인근의 진주에서 징발된 여러 민간 공장과 기지 내 공장들을 활용해 시설을 구축하고서 제1전투비행단을 지원했다.

나아가 제80항공창은 1952년 6월부터는 정비교육대를 두어 제2정찰비행전대에서 실시하던 정비사 교육도 이관하여 체계적인 정비 인력 육성을 도입했다.

제80항공창은 1953년 2월 1일 제81항공수리창으로 개편되면서 마산으로 이전했다가 진해를 거쳐 공군 확장 계획에 따라 대구 동촌에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였다.

공군은 이를 기반으로 항공본창을 만든 뒤, 항공창사령부를 거쳐 군수사령부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연혁을 봤을 때, 제80항공창은 현 군수사령부의 주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초반에는 진료소 정도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을 설치해야만 한다. ‘독립 공군’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항공기’라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기만 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80항공창의 창설은 ‘독립 공군’이라는 도시가 도시로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인 종합병원을 구축했던 사건이다. 이로써 공군은 하나의 군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었다. □

공군 박물관 인사이드

6·25전쟁기 공군 군사 기록물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군이 된 이후 어느덧 75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7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공군은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왔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공군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공군 박물관 인사이드’에서는 공군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조명해나갈 예정이다.

6·25전쟁기 종합보고서와 군사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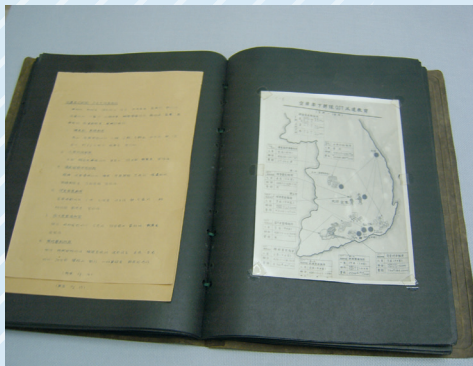
시대를 구분할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로 쓰인 기록이나 문헌의 존재유무이다. 이렇듯 ‘기록’은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록은 과거의 인간이 문자라는 매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며 과거의 업적과 과오를 학습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문화재는 6·25전쟁이라는 전쟁을 맞아 미숙한 상태로 전쟁을 치뤄야 했던 대한민국 공군이 6·25전쟁 중 남긴 기록물들이다.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 종합보고서와 군사일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펼친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0전비는 6·25전쟁 시기 공군의 최전방이었던 강릉기지에서 활약한 비행단이다. 10전비의 전신이 되는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1년 8월 1일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후 제10전투비행전대를 강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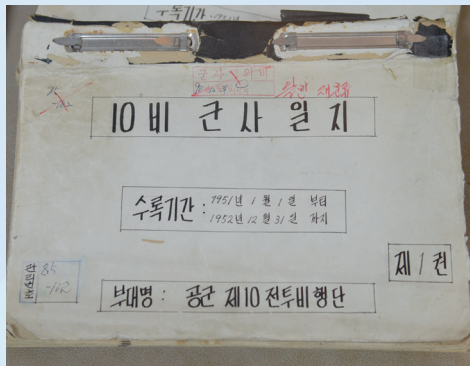
전개시키고 이곳에 공군의 전투 역량을 집중시킨다. 전쟁을 치르며 10전비가 위치한 강릉기지는 휴전될 때까지 총 7,851회의 전투 출격을 감행하며 대한민국 공군 단독출격(1951. 10. 11.)과 대한민국 공군의 3대 작전인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1952. 1. 15.), 평양 대폭격 작전(1952. 8. 29.), 351고지 지원작전(1952. 10. 28.)을 수행한다.

이렇듯 10전비는 당시 최전방에서 전투와 관련된 모든 작전이 이루어지는 전투부대였다. 10전비 종합보고서는 1953년 3월 6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 작전은 물론 기상, 통신,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10전비가 공식적으로 남긴 이 기록물을 통해 전쟁 당시 전투력이 집중되었던 10전비의 다양한 작전과 그 경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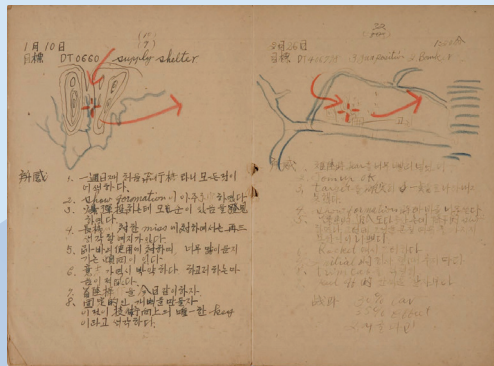
“여기에 기록된 각종 보고는 작전을 지도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믿는 바이며 작전 경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파악을 가짐으로써 차기 작전을 지도하는데 좋은 자료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0전비 종합보고서 내부 사진



10전비 군사일지 1권 표지



출격일지 내부

위의 보고서 속 인용구처럼 10전비 종합보고서는 전쟁이 공군에 남긴 교훈을 후세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군사일지’는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군사 자료를 가리킨다. 10전비 군사일지는 앞서 설명한 종합보고서에 비해 더 광범위한 시간을 다루고 있다. 1951년 1월 1일부터 1955년 12월 31일까지를 다룬 이 군사일지는 제10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기 전인 1951년 1월 1일 ~ 7월 31일, 제10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었던 시기인 1951년 8월 1일 ~ 1953년 2월 14일 그리고 제10전투비행전대가 제10전투비행단으로 독립한 시기인 1953년 2월 15일 ~ 1955년 12월 31일까지로 나눌 수 있다.

10전비 군사일지가 우리에게 의미있는 이유는 6·25전쟁 당시 비행단의 활약을 기술한 당대의 자료라는 것이다. 이 군사자료 속에는 1951년 10월 11일 수행한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 단독출격 등 공군의 역사가 된 굵직한 기록과 함께 공군이 독립하여 공군비행단이 탄생하고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단 등으로 분화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초창기 공군이 펼친 활약과 공군 주요 부대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0전비 군사일지는 가치가 큰 자료이다.

전투 조종사의 자필 기록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는 전쟁을 마추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인간적 고뇌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처럼 전쟁을 겪은 개인이 남긴 기록은 공식적인 기록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과거의 전쟁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투 조종사의 출격일지’와 ‘전사 조종사의 자필기록’은 6·25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전투 조종사의 출격일지’는 공사 1기 출신 조종사 이배선(예비역 대령)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참고사항 등을 일

자별로 기재한 일지이다. 내용의 수록 기간은 첫 출격을 한 1952년 12월 13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이다. 자료 속에는 출격마다 일시, 목표지점, 임무종류와 작전지도까지 기재되어있다. 더불어,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마음가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의 작전 준비와 출격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이 자료는 긴박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전투 조종사의 활약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전사 조종사의 자필기록’은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인 전투 조종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긍지와 두려움, 희망과 걱정 등 감정상태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공군 박물관은 공사 1기 조종사인 김현일 대위와 임택순 대위의 자필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일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대공포화에 피탄되어 전사한다. 김현일 대위는 1953년 2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기를 남겼으며 마지막 편은 4월 18일이다. 일기 속에는 훈련 중 실수한 경험, 비행훈련 중 느낀 감정 등이 담겨있다. 임택순 대위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첫 전사자로, 1953년 3월 6일, 아군 지상군 작전 엄호 중 지상포화에 피탄되어 전사한다. 임택순 대위는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공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전사할 당시의 사진들까지 모아놓은 사진첩을 만들었다. 사진첩 중간 중간에는 수기 기록도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위 두 조종사의 자필 기록은 6·25전쟁의 미시적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록들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기록물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6·25전쟁 중 공군이 남긴 군사 기록물들은 우리가 공군의 과거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공군의 관점에서 ‘6·25전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공사 1기 조종사故 김현일 대위



공사 1기 조종사故 임택순 대위



임택순 대위 앨범 내부, 강릉기지로 떠나는 임택순 대위

역사 속 공군 이야기



6·25전쟁 직후 한국 공군 내 조종사적성검사 도입에서 한·미 공군의 역할

6·25전쟁기 한국 공군 내 항공기 사고와 미국 공군의 진단

창설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전쟁을 맞은 한국 공군에서 항공기 사고는 전쟁 내내 그 작전뿐 아니라 운영까지도 심각하게 제약했다. 우선, 사고는 관련 항공기에 크고 작은 손실을 유발하여, 그렇지 않아도 가용 항공기의 절대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공군의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 게다가 때로는 조종사의 손실까지 유발하여 작전이나 훈련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조종사뿐 아니라 장차 조종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규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숙련 조종사의 손실은 그 여파가 심히 컸다.

관련 기록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해보면, 전쟁 발발부터 1953년까지 한국 공군 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총 234건에 달했다. 이 중 항공기의 완전한 파괴나 대파(大破)가 유발된 중(重)사고는 133건이고, 중파(中破)나 소파(小破)가 발생한 경우는 101건이었다.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1950년 33건, 1951년 49건, 1952년 62건, 1953년 90건이 발생했다. 1951년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

하는 과정에서 비행훈련과정이 상당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그 이후의 사고 발생률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미국의 항공기 원조가 전쟁 내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던 한국 공군으로서는 사고에 의한 항공기 손실이 매우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항공기 원조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1953년 이전의 손실은 공군의 전반적인 전력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사고로 인한 조종사의 손실 또한 공군을 압박했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기간에 기성(既成) 조종사 26명 중 사고를 경험한 인원은 7명에 달했으며, 그중 5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 통계는, 1950년 8명, 1951년 6명, 1952년 13명, 1953년(휴전 이전까지) 12명의 조종사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록하였다. 전쟁 동안 출격했던 조종사가 129명(F-51 115명, L형과 T형 항공기 14명)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조종사 손실이 공군에 가한 부담의 무게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 글은 2023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발행한 학술지 『아세아연구』 제66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 「6·25전쟁 직후 한국 공군 내 조종사적성검사 도입에서 한·미 공군의 역할」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은 한국과 미국의 공군 간에 공유되었다. 1952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고문활동을 한 미국의 제6146공군고문단(Air Advisory Group(ROKAF))은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며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 공군의 훈련프로그램은 ‘감탄스러울 정도로(admirably)’ 발전했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 L형 항공기에서는 11건, T-6에서는 11건, F-51에서는 12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제5공군도 그러한 결과의 원인



1952년 8월 F-51D 입과 조종사들의 입과 신고

은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고, 한국

조종학생들이 항공기의 비행원리나 내연기관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었다.

미국 공군의 새로운 접근

미국이 새로운 방향에서 한국 공군 내 항공기 사고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휴전 직후였다. 그것은 조종사후보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한국 공군의 체계가 적합한지를 진단해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진단이 시도된 발단은, 1953년 들어 항공기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었다. 특히 심각하게 여겨졌던 점은, 대부분 사고가 교관조종사나 조종학생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1953년 10월에 미국 제5공군은 사천기지를 공식적으로 검열했다. 주목할 점은, 그에 앞서 8월에 비행군의관 에드워드 런델(Edward S. Lundell) 대위를 사천기지에 파견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천기지에서 조사하며 뜻밖에도, 한국 공군에 비행훈련 입과에 부적합한 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적성검사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런델 대위는 이로 인해 조종사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점을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공군규정에서 규정한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업무(Air-crew Effectiveness Program)를 기반으로 상세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공군고문단장에게 송부된 조사 결과서에서는 한국 공군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공군에서는 군사항공적성검사(Adaptability Rating for Military Aeronautics; ARMA) 등의 심리검사가 비행훈련에 입과하기 전 후보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후보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체검사 또한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공군 비행군의관들의 항공의학에 대한 지식은 미천하며, 그들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조종사의 건강을 통제하거나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문제시되었던 점은, 한국 공군에는 정신과 군의관이 없으며,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항공적성검사를 한국의 기준에 맞게 각색하여 적용할 것과 조종사 후보생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다. 아울러 한국 공군 군의관들을 미국 공군 항공의무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할 것과 한국의 비행군의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후보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 개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의 경과를 미국 공군의 비행군의관이 감독할 수 있게 할 것 또한 권고했다.

그 결과, 우선 미국 공군의 적성검사체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각색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결국, 비행군의관이 후보생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파악한 의학적·심리학적·정신의학적 사실들을 토대로 피검자의 ‘성숙도’, ‘안정성’, ‘열정’, ‘명백한 역경과 군사 항공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투지’ 등을 평가하는 미국의 검사체계가 ‘한국형 군사항공적성검사(KARMA)’로 재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련된 한국형 적성검사는 8월에, 사천기지에서 이미 비행훈련 중이던 조종간부후보생 86명을 대상으로 뒤늦게 적용되었다. 이것이 한국 공군 최초의 적성검사였다. 이 검사에서는 13명이 탈락하고, 15명이 탈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공군본부는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incident prone individuals)’로 지목된 13명을 비행훈련에서 ‘도태(washed-out)’ 처리했다. 검사 결과, 점수가 경계치에 있어 당장은 구제되었지만 결국 ‘비행기량미달’로 도태된 8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후보생 중 거의 1/4이 검사 결과의 영향으로 중도에 걸러졌다. 검사의 효과성에 고무된 미국 측은 9월 들어 검사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일에 나선다.

한국 공군: 항공의학의 불모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공군은 6·25전쟁기 한국 공군의 항공의학적 발전의 수준을 거의 ‘불모지’와 같은 상태로 인식하였다. 사천기지를 검열한 비행군의관이 제 6146공군고문단에게 제출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그러한 입장을 축약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항공의학적 발전을 도모해온 한국 공군 내부의 자기주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한국 공군이 항공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10월에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였다. 육군 내에서 항공부대로 운영되던 1948년부터 항공의학에 대한 인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항공부대에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이미 상당한 경륜을 갖춘 항공인이 적지 않았던 점이 이러한 발전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는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인들은 항공의학에 꽤 익숙해 있었으나 오히려 의무(醫務)분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초대 의무처장 장덕승(張德昇) 대위와 계원철(桂元喆) 중위 등은 고서점에서 어렵게 구한 『Fit to Fly: A Medical Handbook for Fliers』(1942)의 일본어판 『항공의학개론서(航空醫學概論書)』로 항공의학을 학습하기 시



초창기 공군 병원 전경

작하고 이를 국문으로 재번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매우 초보적이지만, 1949년에 진행되는 육군항공사관학교(훗날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선발과 여자항공교육대(공군 창설 후, ‘여자항공대’) 대원 선발에서 나름의 ‘항공적 성신체검사’를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였지만 1952년 7월 1일에 공군병원 예하에 ‘항공의학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그 자체가 한국 공군의 내생적 노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연구소는



제5차 항공의학학술 집담회(1954. 5. 29.)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 조종사들의 지도 아래 합동출격하던 초기의 작전 형태에서 벗어나 1951년 10월부터 단독출격에 나섬에 따라, 전투조종사의 건강관리와 비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의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었다. 여기서의 비록 초보적일지언정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비행과 전투기동이 조종사의 신체에 미치는 제반 영향과 비행피로도의 문제뿐 아니라 조종사에게 필요한 영양관리의 문제까지 연구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소가 1952년 12월부터 『항공의학(航空醫學)』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의의가 남달랐다. 『항공의학』은 항공의학을 발전시켜 조종사의 전투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 공군 내부의 다양한 논의와 제언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창간호에서 공군병원장 박건원(朴乾源) 대령은, 치열한 전쟁 중에 『항공의학』 월보(月報)를 창간하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이 어리고, 아(我) 공군 역시 탄생할지 얼마 안 되는 때이니만큼, 혹 시기상조라는 의구(疑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비록 후진(後進)이라는 명패는 면하지 못할망정, 조속히 가질 것은 갖고, 갖출 것을 갖추고 난 연후(然後) 키워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썼다. 나아가 그는 “전쟁은 바야흐로 고도로 과학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군의 전투는 과학의 정수를 강요하고 있다. 항공의학의 발전은 전쟁 수행상, 군의 지대한 요구이며, 또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의와 문제를 무한히 내포하는 것”이라며 『항공의학』의 출간목적을 분명히 했다. 공군본부 의무감은 “차지(此誌)의 집필자는 특정

한 국한된 사람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군의무부에서 근무하는 전원이 담당하여 투고하기 위하여서라도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라고 썼다. 항공의학연구소장 서순규(徐舜圭) 대위는 세계적으로 항공의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정리하였으며, 공군본부 의무과장 계원철 중령은, 미국 공군 의무참모(교육부장)인 에드워드 켄드릭(Edward J. Kendrick) 준장이 1951년 3월 조지타운(Georgetown)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군(軍)항공계의 의학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한국 공군 내 항공의학의 발전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은 비행군의관 제도의 도입이었다. 비행군의관의 필요성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선진 항공군에서 이미 상당한 경력을 쌓은 조종사들은 공군이 비행군의관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동기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그 실행 또한 도왔다. 특히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받아 항공생리와 비행군의관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김신(金信)과 일본에서 시험비행조종사로 일했던 터라 해당 분야에 마찬가지로 조예가 깊었던 장성환(張盛煥)은 그러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공군은 실정에 맞는 공중근무자건강관리업무(AEP)를 개발하기 위해, 1952년 1월부터 3월까지 2명의 군의관(계원철, 고영철)을 미국 공군의 제49전투폭격기단 의무전대(대구)와 제18전투폭격기단 의무전대(진해)에 각각 파견하여 비행군의관직무훈련을 이수하게 하고, 10월에는 이들을 공군 최초의 공중근무 비행군의관으로 임명하였다.


직무훈련은 한국 공군의 의무병과가 공군본부와 미국 제5 공군 의무감을 설득하여 실현된 것이었다. 이렇게 임명된 비행군의관들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공중근무자건강관리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공군은 이의 본격적인 발전을 의무병과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비행군의관의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사천기지에 비행군의관실이 창설된 이후 “점차 그 업무의 중요성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급일에 와서는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여 다대(多大)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1953년 6월의 내부적인 평가는 한국 공군의 의무병과가 비교적 일찍 항공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업무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아직 공군 전체의 차원으로는 확대되지 못한 상태였다.

심리학적 적성검사의 필요성도 미국 공군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한국 공군 내에서 의무병과를 중심으로 공감되어 가고 있었다. 공군병원 항공의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던 서울대 심리학과 의 이진숙(李鎭淑) 교수는 1953년 4월 발간된 『항공의학』에서 선구적으로 조종사에게 적합한 심리학적 적성검사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조종사에게는 그 직업수행 상 필요한 특수한 성능(性能)뿐 아니라 지능, 지각, 운동기능, 흥미, 지식, 성격, 나아가 인격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되므로, 조종사의 심리학적 적성검사는 그러한 점들을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검사는 지능검사, 인격/성격 검사, 협의의 적성검사의 3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의 선발을 위해 적용하던 신체검사방법이 항공의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심리학적 적성검사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1953년 5월 비행군의관 고영철(高永哲)은 공군사관학교 응모자를 포함하여 지상교육 중이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를 분석하여 미국 공군의 수치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와 발전적 제언을 담은 글에서 그는, 미국의 경우 조종 지원자 중 불합격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정신학적 결함에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검사에서는 그와 같은 결함이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50%에 달하던 훈련 도중 실격자의 비율을 심

리학적 검사법의 채택으로 전쟁 중에는 30% 이하로 떨어트리는 데 성공했던 美 해군항공대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공군이 신경과학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해 막대한 경비,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무진뿐만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항공기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적성검사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되었다. 2명의 군의관은 1953년 5월까지 발생했던 총 50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그 주요 원인으로 기계 고장 6건, 날씨(天氣) 3건, 불가피 5건, 실수 11건, 기술 부족 17건, 정신 과민 6건, 피로 2건, 군기 이완 2건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그들은 고장, 날씨, 불가피 같은 원인은 군의관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나 나머지는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문제이며, 정신상태에 관한 의학적 접근법이 있으면 능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기술부족도 사고 순간의 정신상태에 많이 좌우되는 법이라고 확신하며 ‘비행 사고의 원인 중 의학적인 문제로서 군의관이 역할을 기대하여야 될 것이 많으며, 그중 정신적 요소가 사고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적어도 1952년 이후 한국 공군은 항공의학의 불모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의무병과 내에서는 조종사의 건강관리에서 항공의학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미국의 선진적인 공중근무자건강관리업무를 모방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이어오고 있었다. 특히, 조종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검사체계를 도입하여 비행훈련 도중에 실격하는 인원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항공기 사고의 발생 빈도까지 줄이고자 하는 논의가 1953년 8월 미국 공군의 공식적인 권고가 있기 전부터 활발해지고 있었다. 미국의 적성검사는 이미 한국 공군 내에 소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검사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도 또한 없지 않았다. 다만, 공군 전체나 그 의무병과 할 것 없이 제반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대전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아직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VII: F-86 세이버

대한민국 공군 F-86 도입 역사

대한민국 공군은 6·25전쟁 당시 주력 전투기였던 F-51D 무스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1955년 6월 20일, F-86F 세이버 전투기 5대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최초로 제트기 시대를 연 공군은 F-86F 도입을 지속하며 1968년까지 총 200여 대를 전력화하였다. 공군의 곡예비행팀인 블루세이버(Blue Sabre Team)의 기종으로 운용되기도 한 F-86F는 1967년 서해 목덕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시키는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다가 1993년 6월 30일에 퇴역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F-86 'F'형 이외에도 F-86 'D'형과 정

찰기인 RF-86F를 운용하기도 했다. F-86D 세이버 독은 기수에 레이더를 추가하고, 사격통제장치를 개량한 파생형이다. F-86D는 레이더를 장착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천후 요격 및 야간 방공임무 수행을 위해 1960년부터 도입이 이루어진 F-86D는 1967년까지 45대가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다. 이후 기체 노후화로 인해 1972년 3월 1일에 퇴역했다. RF-86F는 F-86F에 정찰용 카메라 등을 추가한 정찰기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1958년 4월부터 RF-86F 10대를 도입하여 전술정찰 임무에 활용했으나 1972년 RF-5A/B를 도입하면서 RF-86F는 그 임무를 넘겨주게 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되었던 F-86F 세이버 전투기



대한민국 공군 곡예비행팀 블루세이버에서 운용된 F-86F

F-86 세이버의 탄생

F-86을 제작한 기업은 노스 아메리칸이다. 노스 아메리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항공기로 유명한 F-51 무스탕 전투기를 개발한 제작사이다. F-86은 F-51의 대를 잇는 개념의 전투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4년, 노스 아메리칸은 NA-134 제트 전투기를 미 해군에 제안한다. NA-134는 기존 F-51의 주날개와 꼬리날개를 활용하여 제트화시켰기 때문에 F-51의 흔적들이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기종이다. 노스 아메리칸은 NA-134의 동체를 연장한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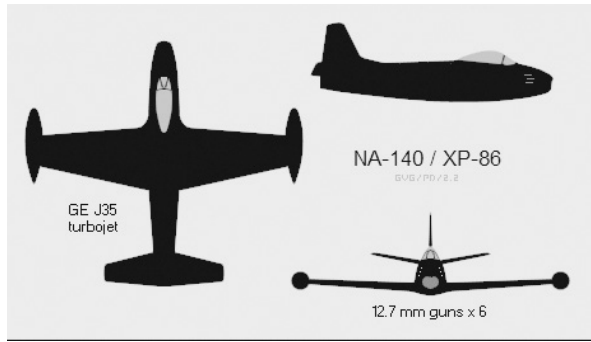
140/XP-86을 미 공군(당시 미 육군 항공대)에 제안한다. 미 해군은 NA-134를 FJ-1 퓨리라는 명칭으로 전력화하는 것을 결정하지만 미 공군은 NA-140을 채용하지 않았다. 노스 아메리칸은 미 공군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NA-140 주날개에 후퇴각을 적용시키기로 결정한다. 날개가 뒤로 젖혀진 후퇴익은 날개가 직선인 직선익에 비해 고속에서 비행 성능이 우수한 특성을 지닌다. 이로써 NA-140에 후퇴익을 적용한 XP-86이 개발된다. 1947년 10월 1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XP-86은 기존 F-80, F-84와 비교하여 우수한 비행 성능을 보였다. 미 공군은 XP-86의 전력화를 결정하고, 첫 양산형인 F-86A가 1949년부터 미 본토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공군 F-86D 세이버 독



노스아메리칸 NA-134를 채용한 미 해군 FJ-1 퓨리



직선익의 NA-140/XP-86 삼면도

| 최초 제트 전투기 공중전, F-86 VS MiG-15 |

1950년 11월, 6·25전쟁에서 소련의 MiG-15가 처음 등장했다. 6·25전쟁 초기부터 美 공군은 F-80 등 구형 항공기를 운용하였는데, 이들 구형 전투기는 당시 신형 전투기였던 MiG-15에 비해 공중전 성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美 공군은 1950년 12월, 신형 전투기인 F-86을 한반도로 급파하게 된다.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F-86과 MiG-15는 라이벌 기종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다. 그 결과 792대의 MiG기가 격추되는 동안 78대의 F-86이 격추되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약 10:1이 된다. 즉, F-86 1대가 격추될 때 MiG기는 10대가 전장에서 격추되었다는 것이다.

6·25전쟁에서 10:1이라는 압도적인 손실교환비를 기록한 F-86이었지만 실제 F-86의 성능은 MiG-15를 압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6·25전쟁에서의 10:1이라는 손실교환비도 연구에 따라 이견이 있고, MiG-15에 대한 F-86의 실제 손실교환비는 5:1, 특히 소련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MiG-15에 대해서는 1.2:1 수준의 손실교환비를 기록했다는 연구도 있다.

실제로 양 기체는 성능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iG-15는 F-86보다 작고, 가벼워서 상승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저고도에서 F-86보다 우수한 선회 성능을 보였다. 무장에서도 F-86은 소구경인 12.7mm 6문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MiG-15는 대구경 기관포인 23mm 2문, 37mm 1문을 탑재하여 MiG-15의 화력이 더 강했다.

다만 美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조종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과 북한 조종사의 기량은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우수한 기량의 소련 공군 조종사는 미국에 비해 수가 적었다. 더불어, F-86은 고고도에서 MiG-15보다 선회성능이 우수했고, 급기동 시 조종사의 하중을 경감시켜주는 G-슈트 비행복, 유압식 조종계통, 레이더와 연계된 우수한 조준기를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어 6·25전쟁에서 MiG-15에 대해 유리한 교전을 벌였다.



MiG-15와 비행하는 F-86

| 최초 공대공 미사일 전과 금문도 상공의 F-86 |

중국에 배치된 MiG-17은 MiG-15보다 성능이 개선된 기종이다. 따라서 MiG-17은 대만의 F-86에 대해서 대등한 수준의 공중전을 벌일 수 있었다. 1950년대 말 중국 공군은 MiG-17을 중국 남부에 배치시켰다.

금문도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만의 섬이다. 1958년, 금문도 상공에서 대만 공군의 F-86F와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MiG-17 간의 공중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대만 공군의 승리였다. 대만 공군의 F-86F에는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AIM-9B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다. 금문도 상공에서 F-86F는 AIM-9B 미사일을 사용하여 MiG-17을 격추시켰고,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광경을 목격한 MiG-17이 전장을 이탈하면서 이 공중전은 F-86F의 승리로 끝났다.



대만 공군의 F-86

기술적 특징과 성능

F-86의 외형적 특징은 공기흡입구가 기수에 있다는 것이다. 공기역학적으로 공기흡입구와 엔진, 노즐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면 엔진의 가장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엔진 추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개발된 1세대 및 2세대 초반 제트 전투기는 기수에 공기흡입구를 설계한 경우가 많다. 기수 공기흡입구 방식은 공기역학적으로는 효율적이거나, 기수에 레이더 등 장비 탑재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다양한 항공전자 및 임무장비를 탑재해야 하는 3세대 이상 현대 전투기는 대부분 공기흡입구를 동체 측면이나 아래에 설치해 기수에 장비를 탑재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날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메서슈미트 사에서 개발한 항공기인 P.1101의 사례와 독일의 후퇴익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35도 후퇴각을 지닌 전형적인 후퇴익으로 설계했다. 또한, 저속에서 공력특성 개선을 위해 날개 앞에 보조날개인 슬랫(slat)을 적용하였고, 수평 꼬리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에도 후퇴각을 지니게 했다.

엔진은 초기 XP-86에는 추력 4,000lbf급의 J35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F-86A 양산형부터는 추력 5,200lbf의 제너럴 일렉트릭 J47 엔진을 사용했다. F-86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고성능 기체인 F-86H형에는 추력 9,250lbf의 J73 엔진을 적용하기도 했다.

무장은 12.7mm M3 중기관총을 기본무장으로 기수에 6정을 탑재했다. 다만 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F-86H형에

는 20mm 기관포 4문을 추가 장착했다.

특이하게도 전천후 요격형인 F-86D에는 기총 없이 로켓만 탑재되어있다. F-86D는 기수의 AN/APG-36 레이더로 표적을 포착한 후 전방 동체 하단의 로켓 트레이를 아래로 전개시켜 24발의 Mk.4 마이티 마우스 로켓을 표적에 한꺼번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F-86D는 기수 레이더의 독특한 형상 때문에 세이버 독(Saber Dog)라는 애칭으로 불리운다.

후기형은 기총 외에 AIM-9B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고, 200갤런 보조연료탱크 또는 1,000파운드 폭탄 2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운용된 세이버는 전술 핵무기 투하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기수의 검은색 레이더 돔 때문에 세이버 독(SaberDog)이라는 애칭을 얻게 된 F-86D



성능이 향상된 후기형 F-86H

생 산


F-86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장기간 대량생산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었다. 양산 이전에 만들어진 시제기로는 XF-86과 YF-86이 있다. XF-86은 직선의 형태의 시제기였고, YF-86은 후퇴익을 적용한 시제기이다.

처음으로 양산된 파생형은 F-86A형이다. 동체와 타이어가 개량된 F-86B가 소수 생산되었지만 곧 F-86E형이 제작되었다. F-86E는 조종개통이 개선되어 고속에서 비행 특성이 향상된 파생형이다. 美 해군에서 사용된 FJ-2 푸리는 F-86E형을 탑재형으로 개조한 파생형이다. 이후 FJ-2는 FJ-3, FJ-4 푸리 계열로 파생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운용된 F-86F는 F-86 계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된 주요 파생형이다. 노스 아메리칸에서만 2,239대가 생산되었고,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면허 생산된 세이버도 F-86F 계열 기체다. F-86F는 추력이 5,910lbf로 향상된 J47-GE-27 엔진이 탑재되고, 주날개 앞에 슬랫이 설치되어 기동성이 향상되었다. 일부 기체는 20mm M39 기관포 4문을 탑재하도록 개조되어 6·25전쟁 당시 김포에서 시험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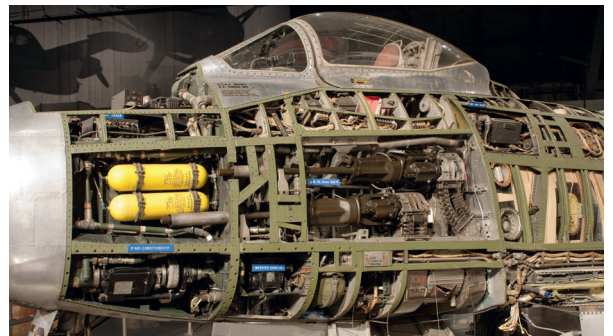
F-86F 이후 엔진을 J73으로 교체한 F-86H가 473대가 생산되었고, 올덴타 엔진을 탑재한 F-86J가 등장했지만 양산되지 못했다.

세이버 독, 즉 전천후 요격형은 F-86D/G형을 시작으로, 로켓 대신 기관포를 탑재한 F-86K, 임무장비와 엔진 추력을 개선한 F-86L이 등장했다. 세이버 독은 초기에 YF-95로 명명될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F-86 계열로 명명되었다. 공기흡입구를 동체 옆으로 개조한 F-86C는 YF-93으로 명명되었지만 시제기만 만들어지고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그 외에 정찰형 RF-86A, RF-86F, 훈련형 TF-86F가 생산되었고, QF-86E, QF-86F, QF-86H 등이 무인기로 개조되었다.

베스트 셀러 전투기인 F-86은 세계 각국 공군에 수출되면서 총 9,860대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원제작사인 노스 아메리칸에서 공군형 6,297대, 해군형 FJ 1,115대를 생산한 것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면허 생산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고 또 생산된 F-86은 대한민국 공군뿐만 아니라 1950년대 서방을 대표하는 1세대 최고의 전투기로 전투기 역사에 기억되고 있다. 



호주에서 면허 생산된 CAC 세이버



20mm M39 기관포를 4문 탑재한 후기형의 F-86H



네덜란드 공군의 F-86K



수원 공군기지에서的美 공군 F-86



호주. 다윈

호주(Australia)는 세계 3대 미항으로 알려진 시드니를 포함하여 많은 관광명소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769만km²로 대한민국의 78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약 2,700만 명에 불과하다.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0,000달러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이다. 군사적으로는 6만여 명의 현역 군인(육군 약 3만 명, 해군 약 1만 5천명, 공군 약 1만 5천명)과 함께 3만여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는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5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전쟁기념관의 참전용사 추모행사

수도 캔버라는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왕립군사대학 등 국가기관이 모여 있는 인구 40만의 작은 행정도시다. 특히 국회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보어전쟁,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간·이라크전쟁, PKO(Peace Keeping Operation, 유엔평화활동)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이 문을 닫는 오후 5시가 되면 은은한 진혼곡 나팔소리와 함께 참전용사 추모행사가 시작된다. 현장학습을 온 초중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앉아 이 의식을 끝까지 지켜본다. 국가연주-참전자 약력소개-유가족·학생 헌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참전자 유가족이 신청하면 누구나 일일 추모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중 크리스마스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행사는 매일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이 도시 근교에는 1911년에 창설된 왕립군사대학(Royal Military College)이 있다. 항상 개방되어



참전용사 추모행사 중 헌화하는 모습

있는 이 학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호주의 장교양성과정은 영국과 비슷하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중 최우수 자원을 엄선하여 군사대학에서 1년 교육 후 장교로 임관시킨다.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들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내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관후보생들은 조국 수호를 위한 간성이 된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호주 왕립군사대학 전경 및 사관후보생들

호주의 호국 성지, 최북단 도시 '다윈'

호주의 '다윈'은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는 전쟁기념관, 지하유류저장소, 폭격 피해를 입은 건물, 기총탄 흔적이 있는 담벼락 등 전쟁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의 폭격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호주 유일의 도시이다. 호주는 다윈을 '호국의 성지'로 승화시켰다. 매년 2월 중순 다윈에서는 수일간의 대대적인 전쟁 재현행사가 개최된다.

다윈 외곽의 공군기지에는 태평양전쟁과 호주공군 역사를 담은 항공역사박물관이 있다. 대형 격납고 형태의 전시실에는 호주가 최초로 외적으로부터 침공당했던 80년 전의 전쟁역사자료가 가득하다.



다윈 해변의 전쟁 당시 해안포 진지



태평양전쟁 당시 건설된 지하유류고 전경



1942년 다윈 폭격 전쟁역사 전시실



다윈 폭격 전쟁유기물

“1942년 2월 19일 10:00, 일본군 비행기 242대가 다윈을 기습적으로 폭격했다. 호주 영토가 최초로 적으로부터 공격당한 순간이었다. 군사목표와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폭격으로 235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항공기 30대와 정박 중인 선박 11척도 침몰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항공기 4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1명이 포로로 잡혔다. 호주는 일본군 상륙 시 영토 일부를 양보하고 ‘브리즈번’ 북부에서의 결전을 계획했다. 다윈 건너편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의 상륙 시도 소문에 호주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브리즈번에 태평양지역 전쟁지휘소를 차린 맥아더 장군의 결사 방어 공약에 일본군은 상륙작전을 머뭇거렸다. 1943년 11월까지 일본군은 호주 북부지역에 약 100여 차례의 공습을 퍼부었다. 필사적인 연합군 항전에 결국 일본의 호주정복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며 박물관은 일본군의 호주 침공역사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양한 항공기로 보여주는 호주공군 역사

항공박물관 내·외부에는 다양한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어 호주의 항공역사를 볼 수 있다. 호주공군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1년 3월 31일에 창설되었다. 대부분의 군사 강국이 1910년대 항공부대가 생긴 것에 비하면 호주의 공군 창설은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포함하여 6·25·베트남·아프간·이라크전쟁에 참전하면서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춘 공군으로 성장했다. 현재 호주공군의 주력전투기는 F-35A, F-18F이며, 지원기로는 E-7A, EF-18A, KC-30A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첨단 항공기를 가진 “작지만 강한 정예 공군”으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야외 전시장 옆에는 관광용 헬리콥터 탑승장이 있었다. 다윈 시내 전경과 아름다운 해변 풍광을 하늘에서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이 수시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렸다.



호주공군 초기 항공기와 1950년대 전투기



호주공군이 운용한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P-40 전투기



미국 B-52 폭격기 동체와 엔진


우방국 전몰장병을 위한 국가전쟁유적지

다윈항 맞은편 ‘만돌라이 반도(Mandorah)’에 위치한 B-24 폭격기 추락지역은 호주의 국가전쟁유적지이다. 1945년 1월 17일, 훈련 중 B-24 미군 폭격기가 이곳에 추락했다. 다윈에서 페리로 20분 정도 걸려 반대편 선착장에 도착하여 다른 여행객 자동차를 얻어타고 유적지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정글 지역 입구에 내리니 친절한 운전자는 ‘충분한 식수를 가졌는지?’ 몇 번이고 되묻는다. 작은 물병을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흔들었다. 표시판을 따라 길로 들어서니, 군데군데 벌건 황토물이 차 있다. 거의 3km 정도 들어가니 갑자기 나무 위쪽이 부러진 수목군(樹木群)이 나타났다. 수백 m 길이에 달하는 이 ‘생치기’는 80여 년 전 추락사고로 생긴 것이었다. 그 끄트머리에 산산이 조각난 항공기 동체·엔진·날개가 덩굴고 있었다. 출격 직전 촬영한 9명 승무원의 활짝 웃는 사진동판이 유적지 기념비를 대신했다. 우방국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미군 장병들을 기리고자 호주는 이곳을 국가전쟁유적지로 지정하였다.



정글에 추락한 미군 폭격기 잔해

무모했던 정글 지역 답사의 위험성

다시 복귀 선박 승선을 위해 큰 도로로 되돌아 나왔다. 주도로에 나오니 지나가는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유독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선착장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정글 지대지만 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었다. 점점 걷기가 힘에 부치기 시작한 그 순간 까마득한 도로 끝 지평선에서 작은 점 하나가 움직였다. 점점 커지는 물체는 승용차였다. 멈춰 불고하고 손을 흔들었다. 정거한 자동차 안에는 흑인 부부가 타고 있었다. ‘웅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건져 주소서’라는 필자의 간절한 부탁에 대한 응답은 “I will jump(최대한 빨리 가겠다)”였다.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선착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를 내려준 뒤, 씩 웃으며 돌아가는 그 젊은 부부가 그날 나의 구세주였다.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한 달, 한 권

마이크 브라운의 명왕성 퇴출기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정효숙 작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꾸준히 올린 기록이 쌓여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랑이씨)가 되고, 2023년 10월에는 도서 부문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었다. 책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도서 인플루언서 랑이씨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저와 나누는 마지막 책이 되겠네요. 이번 호에서 다룰 책은 바로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입니다. 1년간 다양한 책을 만났으나, 아직 한 가지 못 다룬 게 있다면 바로 과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 분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어떤 내용인지 제목에서부터 짐작이 가지죠? 2006년 8월 24일. 현대 천문학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당하여 ‘왜소행성’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아니, 왜 멀쩡히 있는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은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이 새로운 천체 ‘에리스’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태양계 안에서 행성 같은 중요한 천체는 다 발견했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이크 브라운은 2002년부터 새로운 천체를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마이크 브라운이 ‘에리스’라는 천체를 발견하면서 행성에 대한 정의가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행성 조건에는 ‘에리스’라는 천체도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행성의 정의를 재정립했고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마이크 브라운은 ‘명왕성 킬러’로 불리게 되었지요.

이 일련의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입니다. 책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천문학과 망원경에 관한 지식, 천문 관측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국제천문연맹 회의와 논쟁, 과학자로서의 태도 등이 무척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책이 꽤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σε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곳이나 행성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쉽게 풀어쓰고 있기도 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부분을 공유해드릴게요. 천문학자가 천체를 관측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달’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는 밝은 보름달이 뜬 날을 밝은 시간(bright time)이라고 부른다. 이런 날에는 하늘이 너무 밝아서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없다. 절반 정도로 어두운 반달이 뜬 날은 회색 시간(grey time)이라고 한다. 천문학자가 가장 기다리는 밤은 달의 공전 주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달이 사라진 덕분에 완전히 깜깜한 하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날을 어두운 시간(dark time)이라고 한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는 달이 밝아서 잘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천문학에서는 이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천체 관측 장면은 더 재밌답니다. 마이크 브라운이 슈미트 망원경 사진 건판을 통해 3년간 천체 관측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방법을 바꾸어 다시 관측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집념의 과학자 아닌가요. 이 집념 덕분에 마이크 브라운은 새로운 천체를 4개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발견한 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제천문연맹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규칙을 정해놓았다. 수성에 있는 크레이터에는 시인의 이름을 붙인다. 천왕성의 위성 이름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카이퍼 벨트에 속한 천체 X와 같은 천체의 이름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붙인다.

저는 이런 세세한 규칙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미 쓰인 이름도 있으니, 이름 정하기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이크 브라운이 관측한 천체 ‘에리스(Eris)’를 보니, 이 규칙이 딱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이 새 이름에 동의했다. 한동안 ‘제나’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가장 거대한 왜소행성은 금세기 천문학계에서 가장 거대했던 결전을 일으켰고, 명왕성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 속 갈등과 불화를 상징하는 여신 에리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갈등과 불화의 여신 에리스. 그리고 그 에리스의 이름을 딴 명왕성을 죽인 천체. 명왕성 퇴출에 대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공군」을 통해 여러분을 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이렇게 끝나지만, 책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독서 생활을 응원합니다! □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마이크 브라운 저 | 김성태 옮김 | 천문출판사 | 출판사: 천문출판사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올리브: 지중해의 황금 기름



노고은 요리연구가

요리연구가이자 대한민국조리기능장으로 '세상의 모든 레시피'와 '한국외식관광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 것을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로, 이 나무는 '올레아 에우로파(olea europaea)'라는 단일종만 존재한다. 올리브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 강하며 수명이 천 년에 이를 만큼 장수하는 식물로, 지중해 동부, 터키, 그리스, 이란 지역이 그 기원으로 추정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올리브를 의미하는 '엘라이아(elaia)'는 영어의 '오일(oil)'과 이탈리아어 '올리오(olio)'의 어원이 되었다. '기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올리브는 풍부한 유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올리브 열매의 약 30%가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 인류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 기름을 추출하고 이를 요리, 불을 밝히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올리브 나무는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리브 오일은 음식 조리와 불을 밝히는 등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올리브 가지는 화해를 의미한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의 상징'으로 올리브 잎으로 만든 월계관과 올리브 오일이 우승자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고대 전쟁에서는 적의 올리브 나무숲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는 주요 식량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심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였다.

올리브 오일에는 소량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E,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천연 방부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연 방부제 성분 덕분에 고대 그리스 상인들은 장거리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크레타섬에서는 올리브 산업이 번성하여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교역을 확장했다. 무역 이후

그리스는 대상 지역을 정복하여 식민지화하였고, 기원전 6세기 말에는 그리스 문명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리비아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그리스의 확장과 함께 올리브 나무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로 전파되었으며, 뒤이어 등장한 로마 제국 시기 올리브는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는 이를 ‘액체 황금’이라 칭했으며, 성경에서도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이 100번 넘게 언급된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정치는 솔론은 올리브 나무의 벌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올리브 오일을 수출 가능한 유일한 농산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곡물 경작지에도 올리브를 심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표토의 유실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브가 심어진 곳에서는 다른 곡물들이 자라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했다. 올리브 재배로 인한 식량 경작지의 손실은 도시 국가 간 전쟁, 내분, 외부 침략 등과 함께 그리스 쇠퇴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올리브는 식재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누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다. 비누 제조법은 우연히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식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재와 결합하여 물에 녹았을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옷과 피부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8세기 무렵, 중세 이슬람 문화에서 발명된 올리브 오일로 만든 비누가 유럽에 전해졌다. 올리브 비누는 스페인 카스티야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카스티야 비누’로 불리게 되었다. 위생을 위한 기본 물품인 비누는 우리를 먼지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줬다. 이러한 위생상태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늘날의 대도시가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올리브 오일로 만든 비누는 합성 세제의 등장으로 더 저렴하고 대중적인 비누가 나타날 때까지 청결과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사에 족적을 남겼다.

오늘날 전 세계 올리브 열매의 90% 이상이 올리브 오일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 비중이 최대가 되는 6~8개월 정도 자란 올리브 열매로搾다. 이때가 되면 올리브 열매는 색깔이 초록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수확한 올리브로 처음 짜낸 오일이 가장 풍부한 맛을 지니며, 올리브 오일 중 가장 우수한 품질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리브는 인류의 식탁에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며 위생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요리에 활용하면서, 일상에 건강과 풍부한 맛을 더해보길 바란다. 



동서양 그랜드투어

‘꼬꼬댁’이 아닙니다: 황창배의 「곡고댁」



이민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2023년 전북도립미술관 객원연구원, 2021-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저서로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한국미술연구소CAS, 2018), 공역서로 《미술사방법론》(세미콜론, 2012), 《육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아트북스, 2005)이 있다.

화면 가운데 흰색으로 그려진 형체는 아마도 닭인 듯하다. 이 닭이 무어라 내뿜는 소리가 두 개의 말풍선에 담겨 있다. 왼쪽에는 한자로 “啼高宅(곡고댁)”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오른쪽 말풍선에는 “꼬꼬댁”이라 쓰여있으나, 그 위로 거칠게 검은색 X를 그려 놓았다. 그러니 흰 닭이 내뿜는 소리는 “꼬꼬댁”이 아니라, 분홍색의 선명한 글씨 “啼高宅(곡고댁)”인 것이다.

‘곡할 곡(啼), 높을 고(高), 집 댁(宅)’ ‘곡고댁’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울부짖는 높은 댁’ 정도가 될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집 댁(宅)’은 ‘댁은 누구시오?’라는 문장에서 쓰이는 것처럼 이인칭 대명사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곡고댁’은 ‘잘나고 높은 이의 곡 소리’라는 뜻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작가는 그림 상단에 한글로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우리는 인위적인 꾀를 쓸 이유가 없잖아. 또 지해도 필요 없어. 예의도 필요 없고 말쑤이지.
물건을 사고팔 때 생길 수 있는 이익과 손해, 그로 인해 욕심, 오해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어지럽히고 있어.*

동이 트기 전, 새벽부터 수탉이 대차게 우는 이유는 다른 수컷에게 자신의 권역을 알리고,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닭은 빛을 감지하는 순간 호르몬이 분비되며 자연스럽게 울음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런 닭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檀紀) 4323년(화면의 황색 숫자)의 인간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을 거스르며 욕심과 오해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에 대한 경고, 이것이 바로 닭의 울음 소리에 빗대 작가가 전하는 말이다.

이 문제의 작품은 한때 ‘한국화 테러리스트’라는 다소 파격한 별명으로 주목받은 화가 황창배(黃昌培, 1947~2001)가 그린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작품을 수차례 선보였으니 별명도 그에 따랐을 터, 그러나 황창배 작업의 면모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는 한국화에 새바람을 몰고 온 ‘혁명가’에 가깝다.

황창배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적 한의사인 아버지에서부터 한문과 고전을 배웠으며, 그림을 좋아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대 회화과에 진학해 동양화를 전공했다. 이후 그는 1977년 작품 「비(秘) 31」로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1978년에는 「비(秘) 51」로 한국화 비구상 작품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데뷔가 화려했던 만큼, 황창배는 1974년 명지전문대학 부교수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러나 돌연 교수직을 그만두고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작업실을 마련해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만큼 작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는 이후 1981년 동산방 화랑에서의 첫 개인전을 열며 동시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낸 현대식 풍속화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1986년에 제작한 「무제」 연작에서 먹의 형상이 이끄는 대로 형태를 더해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설화나 현대 신화 속의 한 장면을 그린 듯 신비로운 분위기의 화풍을 구사하기도 했다.

황창배가 이렇듯 다양한 기법과 화풍을 넘나 들을 수 있었던 데는 한국화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그는 한 잡지사와 특집 대담에서 “전통적 동양화를 공부하다 보니 이

것 또한 중국적 화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선 서양인의 방법론을 선택하며 기존 미술에 대한 반발로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라며 파격적인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1990년대 들어 황창배는 먹과 아크릴, 유화물감, 한지와 캔버스 등 더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입체감이 느껴지는 색면을 활용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을 시도했다. 그가 남긴 “밀가루로는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수나 수제비도 만든다.”라는 유명한 말은 서양화 재료와 기법을 마다하지 않은 자신의 작업방식의 의미한다. 그는 전통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지 결코 전통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구습에 연연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의 독자적인 세계와 질서를 구축해나가고자 했다.

2001년 갑작스러운 암으로 작고하기 전까지 그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했다. 재료와 기법은 물론 아동화와 낙서화 같은 작업을 남기기도 했으며, 어떤 경향에 종속되지 않는 황창배만의 화풍을 계속 확장해갔다. 그의 말대로 진정한 한국성이란, “시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었음을 그는 적극적인 실천과 작업으로 남겼다. □



[도판] 황창배, 「무제-곡고택」, 1990, 한지에 혼합 재료, 127x61cm, 황창배미술관

영화로운 나날

「존 오브 인터레스트」 - 평온한 일상의 벽 너머에 깃든 섬찝한 진실



정송희 영화전문블로거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열렬하게 좋아한 끝에 부산대학교방송국의 PD를 거쳐 부산 KBS-FM에서 작가를 했고, 대종상영화제에서 예산심사를 맡았었다. 지금은 '송이둥이'라는 필명으로 영화 평론을 쓰는 네이버 영화전문블로거·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가 초기 영화 촬영 및 상영장치인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를 발명한 이후 우리들은 영화를 보면서 소소한 감정을 느끼고 큰 의미에서는 세상과 인생,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영화가 만나면 그 효과는 메아리가 되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2024년 아카데미 국제 장편영화상을 받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역사의 단면을 소재로 연출, 음향 그리고 촬영 면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한 작품으로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낸 작품입니다.

영화는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와 어둠으로 시작해 점점 잉잉거리는 벌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로 채워지며 1943년 무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루돌프 회스 중령은 퇴근하자마자 피 묻은 부츠를 수돗물로 씻어내고 정원이 있는 대저택으로 들어갑니다. 아내 헤트비히와 다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수영과 낚시를 즐기면서 매우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꾼들은 조용하고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일을 돌보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얼핏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즈음, 정원을 가로지른 벽 너머로 총성과 비명, 뿔가 꿩 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수용소 옆의 관심지대(존 오브 인터레스트, Zone Of Interest)에 있는 회스 중령의 집을 평범한 가정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본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입니다. 화면 전면엔 나치의 모습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만 나오고 유대인들은 중령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 대사도 없고 모두 카메라 앵글의 뒤편에 흐릿

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밖에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모습 이면에서 펼쳐진 나치의 만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 같은 ‘충돌’을 사용해 ‘악의 평범성’과 ‘어둠’이 뒤덮은 세상을 감싸는 ‘따뜻함’과 ‘마지막 양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면을 쓰고 살지만 나치의 악랄함과 섬뜩함을 상징하는 회스 중령이 강박적으로 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둠’이 뒤덮은 세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반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12살 폴란드 소녀의 모습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선행의 온기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헤트비히의 친정엄마가 놀러와 사위와 딸의 성공을 보고 기뻐하며 딸이 건네주는 유대인들의 유품을 입어보다가 벽 너머 보이는 소각장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커튼을 치며 애써 외면하는 장면을 통해선 ‘일말의 양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베를린으로 근무지를 옮겨 수용소의 규모를 확장하는 일까지 맡은 회스 중령은 파티에 참석해서도 ‘이 파티장을 가스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충고가 너무 높아서 가스 질식사를 시킬 수 없겠다는 혼자만의 결론까지 내려 버리는 모습에서는 상부에서 명령한 ‘악’을 무비판적으로 행하는 ‘악의 평범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회스 중령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다가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 불빛을 통해 과거가 2023년 현재의 아우슈비츠 건물로 연결되어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소를 청소하는 장면과 신발과 소지품 같은 유품들이 쌓인 현재 아우슈비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스 중령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자꾸 구역질을 하며 토하고 싶어하지만, 못하게 되자 침을 몇 번 뱉고 계속해서 아래로, 아래로 어둠이 드리운 계단을 내려가며 영화가 끝납니다.

나치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다가 무심코 시선을 돌리면 벽 너머로 보이는 굴뚝의 연기가 보입니다. 회스 중령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기괴한 사운드가 함께 들려오는 연출이 있습니다. 회스 중령의 생일파티로 시작한 영화가 베를린 나치친위대 파티로 끝나는 사이에 나오는 비명 한 마디도 없이 홀로코스트를 표현합니다. 음향의 상승으로 시작해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고 계단의 하강으로 끝맺음하며 역사의 아픔을 고발하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여태껏 봐왔던 홀로코스트 고발 영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반영한 영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생각하는 그림

오렌지 주스에 담긴 역발상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습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렌지 주스 브랜드 '트로피카나'(Tropicana)는 제품명에서 'A'와 'I'를 지운 한정판 오렌지 주스 병을 제작해 박람회장에 배포했습니다. '24년 CES의 최대 화두는 'AI', 즉 '인공'지능이지만, 트로피카나의 주스는 인공적인 첨가물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공'의 경연장에서 자연 성분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강조한 이 역발상적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로피카나의 역발상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47년 설립되어 미국 오렌지 주스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던 트로피카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일 주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거 과일 주스는 과즙이 들어 있어 몸에 좋은 음료라고 여겨졌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 주스는 '당이 잔뜩 들어간 칼로리 폭탄'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로피카나는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분명한 이유를 새롭게 제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트로피카나는 오렌지 주스의 산도에서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시리얼을 개발하여 시리얼에는 우유만 부어 먹는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었고, 오렌지 주스를 부어 먹는 시리얼은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 트로피카나는 기존의 오렌지 주스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개구리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트로피카나의 역발상 전략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상황을 살짝 비틀어 반전을 줘서 고객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품이나 카테고리에 대한 기존 인식과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로피카나가 ‘인공’지능의 경연장에서 ‘자연’을 강조한 것이나, 우유 대신 오렌지 주스를 부어 먹는 시리얼을 개발한 것 같은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혁신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역발상 전략을 통해 끈질기게 살아남은 트로피카나와 같이,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과 이를 실현하는 과감한 도전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통념을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길러 봅시다. 📺

* 본 교안은 SERICEO ‘청개구리 마케팅의 대가, 트로피카나’ 강의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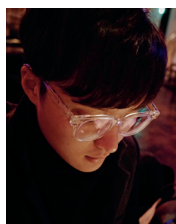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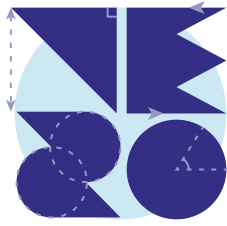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공테리어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간단한 방법

해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뀔 때, 종종 집을 색다르게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 큰 가구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쉽게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패브릭 교체를 통한 공간 변화

패브릭 교체하기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색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커튼, 침구, 쿠션, 러그 등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이나 계절에 맞는 색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어둡고 진한 색상으로 교체해주면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통한 분위기 전환

조명 더하기

조명은 인테리어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에 따라 공간에 따뜻함을 주기도,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조명은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 자체의 디자인이나 색감으로도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소품 활용

소품 추가하기

마지막으로는 소품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비어있는 벽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풍경이나 일러스트 그림 등 다양한 포스터 액자를 걸어주거나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나 디자인의 시계를 걸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공간에 생기를 더해주는 식물이나 꽃을 두는 것도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향초나 디퓨저, 피규어 등 작은 소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책 읽는 공군

누구나 아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유일한 생각을 만드는 독서법

소령 이선호


“정독은 교과서에서 끝내라! 비틀어 읽어야 비로소 당신의 문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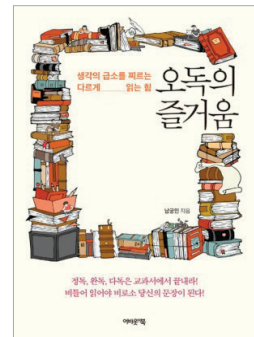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책을 있는 그대로 읽고, 저자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오독의 즐거움』의 저자 역시 예전에 독서를 할 때 머리를 싸매며 정답을 찾으려 애썼다고 밝힌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은 답이 어디서 본 것 같아 찝찝했고, 요약 정리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말하는 ‘정답’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허탈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책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글이나 영상 역시 원작(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저자의 의도와 핵심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로 저자의 책에 없는 말을 쓸 수 없기에, 아무리 잘 써도 그 결과물이 원본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둘째로 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작업은 실제로 해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구별하는 게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저자는 ‘정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오독’하기로 마음먹었다. 세계 주요국의 지리를 정리한 <지리의 힘>을 읽으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자원도 마땅치 않은 우리나라의 ‘팔자’ 타령을 하면서 각국의 팔자에 대해 분석했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담은 <사피엔스>에선 ‘왜 오늘날에도 사기 피해가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지리의 힘>을 쓴 저자 팀 마샬이나 <사피엔스>를 쓴 저자 유발 하라리가 들으면 어이없을 만한, 매우 엉뚱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는 작업을 반복하면 누구나 아는 ‘정답’이 아닌 나만 떠올린 유일한 생각이 쌓인다. 수많은 사람이 읽은 명저에서 찾은 나만의 ‘다른 관점’이 차곡차곡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두고 ‘정면 사진’을 찍으려는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나만 아는 숨겨진 포토존에서 살짝 삐딱하게 찍은 ‘인생샷’이라고 비유한다. 그러면서 ‘오독’은 책 읽기의 주도권을 독자가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독서의 고수’라고 불리는 저자가 엄선한 마흔아홉 권의 명저를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읽어내는 방식을 보면 이 책의 이름이 왜 『오독의 즐거움』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그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독서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읽은 책은 『오독의 즐거움』을 읽기 전에 읽은 책인가, 읽고 나서 읽은 책인가로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오독의 즐거움』
남문민 지음 | 어떤웃어북 펴냄

기다리며 기리는 마음을 가진 하루

Date . 2024 / 09 / 25

오늘 우연히 ‘방구석 1열’이라는 영화소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지난 3·1절에 특집으로 방영된 ‘방구석 1열’에서는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낸 마지막 1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다. 너무 비좁아 앉을 수조차 없는 감옥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다리가 붓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감옥을 돌았다. 매일 돌 섞인 밥이 나오고, 구타는 일상이었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는 벽관에 갇혀 수 없는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고 손톱을 뽑는 모진 고문에 고통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였다. 이런 모진 환경에서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고작 열여덟 살이었다. 감옥에서 1년여 가까이 계셨으니 감옥에 들어오셨을 나이는 고작 열입곱 살 정도였을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에 다니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기에도 너무 바쁜 나이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웠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서 전역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간절히 바랐을 ‘일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 운동 1주년을 기리기 위해 감옥에서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운동을 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 1주년을 기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세웠던 마음으로 나도 다가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까지의 남은 날들을 세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수많은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일기를 읽게 될 독자들도 나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느끼길 바라며 유관순 열사의 유언으로 오늘의 일기를 마친다. ■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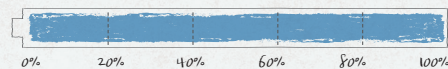


MEMO

송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하루



오늘 하루 만족도



마음의 소리

김은경

ynyhe**@hanmail.net

캐나다 몬트리올의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를 읽으면서, 전쟁 사료 수집을 위한 캐나다인의 노력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박물관 내의 6·25 전쟁실을 포함해 캐나다군의 참전 역사가 전 시되어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또한, 박물관 야외에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여가를 즐긴다는 것도 정말 부러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멋진 공군박물관이 조속히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수

wjdt01**@naver.com

아이와 같이 사천에어쇼에 가보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월간 『공군』 10월호의 표지처럼 멋진 에어쇼를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공을 지켜줄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 KF-21의 시범 비행 역시 정말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천에어쇼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윤진욱

qwerty1234**@naver.com

「이달의 공군史」를 보면서 10월은 공군에게 정말 뜻깊은 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1일 창군과 10월 11일 단독 첫 출격까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한 멋진 대한민국 공군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요즘처럼 날 좋은 10월에 나들이도 하며 소중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대한민국 공군 장병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AF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 새롭게 단장 중인 ‘공군박물관’이 있습니다. 공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공군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길 추천드립니다.

AF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에어쇼에서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AF

앞으로도 월간 『공군』 편집실은 지금의 대한민국 공군을 있게 한 역사와 앞으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며 구독자분들께 공군의 흔적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2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7